



國際 食糖값 暴落

세계적으로 설탕가격의 低迷가 계속되고 있다.

74년 11월 파운드당 65.5센트하던 뉴욕의 설탕 시세는 현재 8센트로 떨어져 당시의 약 8분의 1의 수준으로 까지 내려가고 있다.

세계의 설탕생산도 올해는 약 8천 8백만톤으로 史上 최고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日 코카, 10% 果汁飲料 開發

日本 코카콜라가 10%과즙이 들어있는 음료

를 개발, 곧 발매할 계획을 세워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사는 최근 수년간 소비자의 기호가 콜라나미향음료계의 탄산음료로부터 과즙이 함유된 음료로 변하는 경향에 대해 10% 과즙음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동사는 지난 73년 50% 과즙의 HISC 오란씨를 개발, 지난해 8백만상자를 팔아 최대시장쉐어를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을 10% 과즙은 50% 과즙음료의 후속타로서 초년도 판매목표를 2천만상자로 잡고 있다. 이같은 코카의 플랜은 기존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코카회사가 10% 과즙음료를 개발하려는 데는 ①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고 ② 콜라나 판타등 탄산음료의 신장을 기대할 수 없고 ③ 10% 과즙음료 개발이 自社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1次產品값 전반적 弱勢

코코아와 코피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차산물 시세가 공급과잉 현상으로 계속 弱勢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국제시세가 전반적인 上昇勢를 보일 것이라 예측은 삼가하고 있다.

1차산품중 코코아와 코피는 각각 톤당 2천 34.25파운드와 2천 3백 31.50파운드의 기록적인 시세로서 최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탕은 아직도 금년 최고시세인 톤당 2백 5파운드(런던 日間價格)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밖에 穀物은 小麥의 作況好轉과 美國의 옥수수 예상 수확량증대로 계속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